

情報社會와 民主主義

增田米二

日本 愛知大學 教授

生産力の 發展과 民主主義와의 關係

이 논문의 주제로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工業社會의 다음에 올 未來社會라고 할 수 있는 情報社會에 있어서 民主主義가 어떠한 發展과 變貌를 거쳐 갈 것인가를 밝히는데 있다. 먼저 이 問題를 解明할 途徑으로 다음의 두 가지의 問題로부터 出發하기로 한다. 그 하나는 生産力の 發展이 民主主義의 發展을 促進하는 基本的要因이 되고 있다는 것 그 둘은 이와 같은 生産力の 飛躍的인 發展에 隨伴하여 이에 對應하는 새로운 產業社會가 形成되고 더욱이 그러한 새로운 產業社會에 對應되는 새로운 民主主義의 패턴이 形成된다고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나는 民主主義를 반드시 資本主義社會가 되어서 비로소 나타난 人間의 近代的思想이라고 限定하여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民主主義의 基本的인 構成要素인 人間の自由라든가 個人의 尊嚴, 或은 人間の 生命의 尊重이라든가 하는 概念이나 思想을 民主主義的 思想이라고 넓게 解釋하고자 생각한다.

그래서 이와 같은 立場에서 人類의 歷史 가운데 民主主義的思想이 어떻게 咲이 트고 形成되어 發展하여 왔는가를 簡單히 돌이켜보자. 먼저 奴隸社會에 있어서 人間の 自由라든가 生命의 尊重과 같은 民主主義的인 思考方式은 어떠한 狀態에 있었을까? 奴隸社會에는 그러한 民主主義的인 思想의 萌芽마저도 全然 볼 수 없다. 그것은 生産力水準이 몹시 낮아서 民主主義的인 思想이 자라날 餘地가 없었기 때문이다. 奴隸社會에 있어서는 人間이 生産力 바로 그것이었다. 곧 人間이 道具였던 것이다. 이러한 奴隸의 肉體勞動으로써 여러 가지의 有用物이 生産되고 「서비스」가 行하여진 것이다. 그러한 경우에는 人間은 動物과 같이 取扱되고 그의 人格은 完全히 無視되었다. 그래서 이와 같은 奴隸는 異民族을 侵略하여 그들을 捕虜로 함으로써 얻어지고 그것이 그대로 生産力의 中心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奴隸社會에서는 奴隸勞動이 典型的인 勞動의 形態가 된다. 奴隸들은 主人의 命令에 따라 여러가지의 일을 하고 「서비스」를 한다. 그에 對한 對價로서는 그저 生存에 要하는 程度의 것 밖에는 주어지지 않는다. 또한 人格도 生活의 自由도 모두다 잃어버리고 있다. 境況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그의 生命을 뺏을 權利까지도 主人이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社會가 드디어는 農業社會로 발을 들여놓자 民主主義的인 思考方式이 徐徐히 싹트기 始作한다. 즉 農業社會가 되면서 우리의 祖上들은 植物의 生殖作用을 効率的으로 再現하는 方法 곧 土地의 生産力을 活用하는 方法을 獲得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土地의 生産力을 活用하여 農作物을 만들 수 있게 된 結果 人間은 여태까지 보다는 훨씬 쉽게 糧食을 얻게 된다. 그래서 農業社會에서는 奴隸가 農奴로 轉化되어 一般的인 勞動形態도 奴隸勞動에서 賦役勞動으로 變했다. 이 賦役勞動의 特質은 土地에의 緊縛을 隨伴한다는 點이며 農奴는 一定한 期間은 封建領主를 爲해서 일을 하게 된다. 그들의 人格은 如前히 認定되지 않고 生殺爭奪權은 封建領主가 잡고 있다. 그러나 奴隸社會에서의 奴隸와 比하면 조그마한 自由를 享受할 수가 있게 된 것이다. 農奴에게 自身의 一家를 거느리고 家族生活을 營爲할 自由를 그나마 누렸던 것이다. 그러나 生産力은 거의 土地의 生産力에 依存하지 않으면 안되고 農奴는 土地에 緊縛되어 있는 段階에서는 아직 農奴의 自由 또는 生命의 尊重이 그렇게 高度한 것은 되지 못했다.

그러나 마침내 工業社會에 들어서면 生産力은 飛躍的으로 發展하게 된다. 이는 衆知하는 바와 같이 人間이 科學革命에 依해서 自然現象의 뒤에 숨은 法則을 發見하고 이것을 活用하여 天然資源에 作用하여 人間에 있어서의 有用物을 生産하는 技術을 開發하게 되었던 까닭이더 그 結果 人間은 드디어 機械動力을 發明하게 된다. 이와 같이 하여 出現한 工業社會에서의 새로운 勞動의 形態는 雇傭勞動이라는 모습을 갖게 된다. 이것은 資本家와 勞動者 사이에 있어서 一定한 契約이 締結되고 그에 따라서 勞動者가 一定한 時間을 一定한 生産場所에 拘束되어 資本家에 提供하기로 한 勞動을 資本家를 爲해서 하는 것이다. 그리고 工業生産力의 飛躍的인 發展에 따라 人間의 自由 또는 生命尊重이라는 民主主義思想이 急速하게 開花하기에 이른다. 그래서 近代 工業社會에서는 人間은 居住, 職業, 宗教의 自由를 獲得하고 自身들을 統治할 主權者를 選定할 權利를 가지며 또한 勞動者는 團結하여 「스트라이크」를 할 수 있는 權利를 갖게 된다.

勿論 工業社會에서의 民主主義는 自然發生的으로 發展했다는 것은 아니며 勞動者階級の 피어린 鬪爭이란 貴重한 經驗을 거치고 있다. 그러나 실령 勞動者階級の 抵抗이나 鬪爭이 어떻게 이룩되어 왔다고 하더라도 萬若 그 基底에 工業生産力의 飛躍的인 發展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自由主義諸國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은 民主主義는 到底히 實現되지 못했을 것이다.

이와 같이 工業生産力의 눈부신 發展에 따라 近代 工業社會에 와서 처음으로 民主主義가 確立되었는데 工業社會에서의 民主主義의 基本的特徵은 個人主義와 自由主義인 것이다. 곧 個人의 尊嚴이나 個人의 自由 또는 利益을 지킬 수 있다는데 中心을 두고 따라서 立身出世나 物質의 要求의 充足에 價値觀이 置重되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個人中心의 自由民主主義가 지금 우리가 經驗하고 있는 民主主義의 實態인 것이다.

情報生産力の 發展이 民主主義에 미치는 影響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工業社會가 끝내는 情報社會로 變革된다고 말해지고 있다. 情報社會란 한 마디로 말한다면 「컴퓨터」에 依하여 知的生産力の 增大에 따라 이루어질 새로운 未來社會라고 할 수 있다. 「컴퓨터」의 最大의 特徵은 人間의 頭腦勞動의 飛躍的增幅에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컴퓨터」에 依한 知的生産力の 增大가 通信回線의 普及과 「시스템」科學의 發展等과 더불어 새로운 情報社會를 形成함에 이른다. 이와 같이하여 萬若 人間의 知的生産力이 크게 增大하였을 境遇에는 應當 民主主義에도 많은 影響이 있음을 豫想할 수 있다.

知的生産力の 發展이 民主主義에 가져올 첫째의 基本的變化는 人間이 生産의 場所 또는 時間的拘束으로부터 解放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컴퓨터」가 從來의 人間을 代身하여서 機械를 操作하여 生産을 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컴퓨터」와 通信回線을 連結한 情報네트워크(Net Work)의 形成이 生産의 場所와 時間으로부터의 人間解放을 더욱 促進하게 된다. 그것은 情報 「넛·웍」의 形成으로 해서 情報 「넛·웍」은 情報媒體의 中心이 되며 이에 따라 人間이 情報媒體의 機能을 다할 必要가 없어져 가는 까닭이다.

人間의 都市集中化는 人間이 스스로 情報媒體임에 큰 要因이 있는 것이다.

예컨대 企業의 境遇 그 本社나 事務室에 「비즈니스맨」이 每日 出勤하는 것은 公業活動을 圓滑하게 進行시키기 爲한 會議 또는 打合等 서로의 意思疎通을 하기 爲한 것이다.

그래서 將來 情報社會가 發展하여 各各의 「비즈니스맨」의 自宅에 端末機가 設置되고 이것을 利用하여 서로의 情報傳達를 하거나 意思疎通이 피하여지면 아침마다 「리쉬아워」에 通勤車에 흔들리면서 會社에 出勤할 必要가 없어질 것이다.

未來의 情報社會에서는 工業社會에서 볼 수 있는 都市集中化傾向이 解消되어 工場이나 本社도 地域的으로 分散化의 方向을 걸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人間이 生産의 場所(工場뿐만 아니라 本社와 營業所까지도 包含해서)와 時間的 拘束으로부터 解放된다고 하는 것은 人間의 自由를 基礎로 하는 民主主義 그 自體에 커다란 影響을 줄 것임에 틀림없다. 그 다음에 人間의 知的生産性的의 向上이 民主主義에 가져올 第二의 基本的變化는 知的「로봇트」인 「컴퓨터」로 物的生産이 行하여지는 까닭에 人間勞動의 質的變化가 온다.

곧 知的「로봇트」가 生産의 擔當者가 되면 人間은 知的「로봇트」인 「컴퓨터」를 操作하고 生産全般를 管理하는 쪽으로 옮겨서게 된다. 이를 달리 表現하면 肉體勞動의 知的勞動으로의 轉化이다. 이와 같이 하여 여태까지의 肉體勞動者는 知的勞動者가 되고 그의 主要한 勞動

의 내용은 監視하는 勞動乃至는 生産全體의 管理로 바뀌지며 知的勞動者의 勞動의 質은 從來의 管理者나 經營者와 同質의 것이 된다. 거기에서의 差異란 것은 質的인 그레이드(Grade)의 差에 不過하게 된다. 이와 같은 肉體勞動의 知的勞動으로의 轉化에 依한 勞動의 同質化가 民主主義에 미치는 影響이란 이것도 또한 대단히 重大한 것이다. 그것은 勞動의 同質化가 그만큼 人間的 思考나 行動意識의 同質化를 促進하여 우리들의 共識(Consensus)의 形成을 容易하게 하는 까닭이다.

다음에 「컴퓨터」에 依한 知的生産力의 飛躍의 擴大가 民主主義에 미치는 第三의 基本的 側面은 知的「로봇」에 依한 物的生産力의 增大가 드디어는 人間的 物質的乃至 生理的 欲求를 充足시켜 줄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다.

情報社會의 出現은 결코 工業生産이 없어진다는 것을 意味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工業生産力의 더 高層의 發展을 隨伴하면서 그 위에 情報生産力의 發展에 基礎를 둔 새로운 社會가 形成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情報社會가 出現하고 그 結果로서 우리의 物質的인 欲求가 充足된다는 것은 어떤 意味에서는 工業社會에서의 個人主義의 乃至 自由主義의인 民主主義 그 自體의 基礎가 흔들린다는 것을 意味한다. 다시 말하면 工業社會에서의 民主主義는 來世中心의 中世的인 價値觀에서 現世的인 個人中心의 價値觀으로 옮겨져서 個人的인 自由나 欲求를 充足한다는 데에 思想의 根據가 있다. 그래서 情報社會에 들어서면서 工業生産力이 한층 높아져 人間은 거의 生理的 혹은 物質的的要求를 充足시킬 수 있는 社會에 들어섰을 때 從來의 個人主義 또는 自由主義의인 民主主義의 存在가 問題될 可能性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다음에 本來的의 基本的側面으로서 情報社會에 들어서면 우리들은 自動的으로 未來의 새로운 社會에 生活을 하게 되며 그리고 새로운 未來社會를 設計하며 디자인(design)할 수 있게 된다. 이로 因한 民主主義에의 影響도 또한 重大한 것이다.

「컴퓨터」는 우리들의 將來의 行動選擇에 有益한 價値있는 情報를 豊富하게 그리고 適時에 提供한다. 「컴퓨터」가 지니고 있는 두드러진 特色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人間的 肉體勞動을 代身하여 知的「로봇」로 하여금 生産의 擔當者로 만든다.

그리고 더 積極的인 側面으로서는 人間的 頭腦勞動을 더 넓게 增幅시킨다는 劃期的인 機能이 있다. 二. 가운데서도 重要的 側面은 自身이 未來에 對한 새로운 目標을 設定하고 이를 達成하기 爲한 複雜한 시스템(system)을 設計하여 그 目標을 實現하는 能力을 우리들이 所有하게 된다는 것이다.

드디어 情報社會가 되면 大學, 政府機關, 企業 더 나가서 一般市民의 家庭에도 「컴퓨터」의 端末機가 設置되어 그것을 操作함으로써 通信回線을 거쳐 大型「컴퓨터」를 利用하게 된다. 또 우리들은 政府나 大學이 所有하고 있는 「데이터」銀行(Data Bank)에서 自由로

必要한 데이터(data)를 끄집어 내어 未來를 選擇하고 새로운 社會와 經濟 政治構造를 設計하며 디자인(design)하여 그것을 實現시킬 수 있는 能力을 갖게 된다. 이렇게 되었을 境遇에 從來와 같은 束縛에서의 解放이라는 意味를 갖는 消極的인 自由는 그 自體의 意義를 喪失하고 反對로 積極的으로 未來를 選擇하여 그에 따라 自身의 自由를 自主的으로 拘束한다는 새로운 價値觀에 立脚한 自由에 對한 概念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또 하나의 面에서는 自身이 未來의 生活이나 社會나 經濟를 디자인(design)하고 選擇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問題에 對하여서 責任을 지게 된다는 立場이 되어 새로운 倫理의 基準이 要求될 것이다. 이러한 觀點에서 情報生産力의 發展은 現在의 工業社會에 對應하여 形成된 個人主義的 自由主義的인 民主主義가 根本的으로 바뀌 놓을 性質을 갖고 있다.

自由民主主義부터 機能民主主義로 어떠한 새로운 型의 民主主義가 今後의 情報社會에서는 期待될가? 그것은 機能民主主義라고 나는 생각한다. 機能民主主義는 從來의 自由民主主義와는 다음과 같은 點에서 根本的으로 相異하다. 첫째는 個人의 尊嚴과 自由에 關한 評價의 積極的轉換이다. 機能民主主義에 있어서도 個人의 尊嚴과 自由에 關한 基本的인 思考方式은 變함이 없으나 그 意味하는 바는 서로가 個人의 人權이나 自由를 尊重한다는 消極的인 側面에서 한층 더 個人의 生活을 能動的으로 社會生活 가운데에 擴大하여 그 속에서 삶의 보람을 充足시킨다는 積極的인 側面이 重視하게 된다. 情報社會에서는 從來의 消極的인 個人主義나 自由主義는 그 意義를 喪失할 可能性이 있다. 工業社會의 成熟期에 있는 先進自由主義諸國에 있어서 두 가지의 側面에서 벌써 그러한 萌芽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 첫째의 側面은 現在 이미 先進諸國에 있어서 生産力의 發展으로 個人의 物理的, 生理的인 欲求가 거의 充足되다. 그 個人의 欲求의 充足의 延長線으로서 生活은 享樂的이고 非生産的이며 頹廢的인 生活에의 兆候를 나타내기 始作하였다고 하는 것이다. 例컨대 美國에 있어서의 「히피」의 急速한 增加, 或은 많은 數에 달하는 「마리화나」常飲者의 무리, 또는 瑞典에서 볼 수 있는 「프—리 콕스」, 이러한 一連의 現象이 意味하는 것은 個人의 物質的 或은 快樂的인 欲望追求의 局限이 人間의 頹廢와 「니히리슴」을 發生시켜, 드디어는 人類 그 自體의 衰退를 가져 온다는 것이다. 이러한 事態는 從來의 消極的인 個人主義와 自由主義에 基礎를 두고 있는 民主主義가 이미 限界에 다달았다는 것을 表示하는 것 밖에 안된다. 또 하나의 側面은 私企業의 自由 競爭原則이 招來하기 始作한 人間疎外와 自然環境의 破壞, 곧 公害問題인 것이다. 元來 私企業의 自由 競爭原則은 工業社會에 있어서 民主主義思想의 하나의 크나큰 기둥이었다. 明白히 私企業은 利潤追求의 基本的인 理念에 따른 自由 競爭에 依하여 商品을 大量生産하고 이것을 一般市民이 大量消費함으로써 現在와 같은 工業社會가 成立된 것이지만 이러한 關係가 밀려 個人生活의 側面에는 頹廢를 가져오고 있을 뿐 아니라 自然環境의 破壞에서 오는 公害問題를 發生시키고 있는 것이다. 工業社會는 이미 말한 바와 같이 自然法則을 天然

資源에 適用시켜 有用物을 만들어 낸다는 것을 中心으로 生産力의 發展을 가져왔다. 그리고 이러한 生産力의 擔當者인 私企業은 自由競爭原理 밑에 利潤을 追求하며 生産力을 發展시켜 近代工業社會를 形成시킨 것이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이러한 形態의 極度の 物的生産力의 發展이 自然環境을 破壞하여 우리들의 社會全體에 커다란 公害問題를 招來하기 始作한 것이다. 美國이나 日本에 있어서 大氣汚染, 交通災害, 或은 過密住宅問題라고 하는 共通의 公害問題가 커다란 社會問題化하고 있지만 그 根源은 私企業이 利潤追求를 爲하여 行한 過度의 無秩序한 物的生産力의 發展과 自然의 破壞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狀況이 今後에도 더욱 더 推進되어 간다면 우리들 自身의 生活 그 自體에 深刻한 影響을 미치게 된다. 이와 같이 考察한다면 私企業이 自由競爭原則을 그대로 伸長시켜간다는 것은 한편에서는 一般市民의 生活를 점점 더 享樂的, 消費的, 頹廢的인 生活로 이끌어 간다. 同時에 自然環境의 破壞는 점점 더 激化되어 이러한 問題가 相乘하여 人類의 衰退를 더욱 促進시키게 될 것이다.

따라서 그와 같은 두 가지의 側面에서 지금은 工業社會發展의 基本的인 뒷받침이 되어 있던 個人主義인 自由民主主義 그 自體가 크게 問題되기 始作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 從來의 消極的인 個人主義나 自由主義란 것으로부터 積極的인 個人主義 乃至는 自由主義에의 轉換이 必要한 것이다. 이에는 當然히 새로운 價値觀이 따르기 마련이다. 그것은 個人의 物質的이고 生理的인 生活의 充足뿐만이 아니고 그 外延으로서의 社會生活 속에 더욱 삶의 보람찬 生活를 함으로서 보다 高次的인 個人的欲求를 充足하려는 方向으로 積極的인 轉換을 한다는 것이다.

우리들이 한번 이와 같은 보다 高次的인 삶의 보람있는 生活를 欲求하게 된다면 한 사람 한 사람의 個人的인 生活 뿐만이 아니고 그外進으로서의 社會生活이 生生하고 「다이나믹」한 것이 되어야만 高度의 生活가 實現되므로 우리들은 必然的으로 社會的인 欲求를 個人的인 欲求와 不可分的인 것으로 생각하여 行動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重要的인 것은 社會的인 欲求와 個人的인 欲求와는 對立되는 概念이 아니고 社會的인 欲求가 個人的인 欲求 속에 包攝된다는 것이다.

같은 말을 自由에 對한 價値觀의 轉換에도 말할 수 있다. 여러 가지의 束縛에서의 解放은 人類의 悲願이었지만 이제 「컴퓨터」의 出現으로해서 人間은 生産의 場所, 時間에서 解放될 뿐만 아니라 未來를 選擇할 能力을 가지는 것이 可能하게 된다. 여기에서 自由란 것의 基本的인 概念에 對해서도 從來의 束縛에서의 解放이라고 하던 消極的인 內容의 것이 아니고 自己가 未來를 選擇하고 行動하며 未來를 創造하여 나간다는 積極的인 것으로 變하게 된다. 그런데 이와 같은 積極的인 自由에 있어서는 두 가지의 새로운 基本的인 特徵이 따르게 된다. 그 하나는 自己가 自進해서 自己의 自由를 버리고 무엇에 拘束되는 것을 自身이 選擇한다는 것이다. 곧 自由의 積極的인 側面은 自主的인 拘束 다시 말하면 自己規制를 隨伴하는 自己選

擇에 오다는 것이다.

그 들은 人間이 自意로 未來를 選擇하고 「메자인」한다는 境遇에는 그만큼의 嚴格한 倫理가 要求된다는 것이다. 個人的欲求가 狹少한 物質的, 生理的인 個人生活에서 그의 外延으로서의 社會生活에 擴充되고 더욱이 그것이 各人의 選擇에 맡겨지는 比重이 커진다면 그 人間の 選擇의 結果가 그 自身뿐이 아니고 社會에 對해서도 어떠한 모양으로 直接, 間接의 影響을 끼칠 것은 確實하므로 그만큼의 嚴格한 倫理가 要求된다는 것은 當然하다.

둘째로는 機能主義가 重視된다는 것이다. 從來의 自由民主主義에서는 人間은 貧富나, 地位나, 才能의 差를 不問에 부치고 또 國籍이나 人種의 相異를 넘어서 하나의 人間이란 點에서는 各等하다는 基本的인 概念이 있었다. 또 協力이란 問題에 對해서는, 어떤 共通目標에 對하여서는 各己의 立場에 따른 分擔이란 것이 一般的인 形態가 되고 있었다.

그러나 情報社會에서는 하나의 人間이라는 立場에서의 平等은 말할 것 없이 嚴格히 지켜 지지만 그에 더하여 各人의 能力이나 機能에 따른 積極的인 協力 또는 社會에 對한 貢獻이란 것이 重視하게 된다.

個人主義와 自由主義에 積極的인 評價가 加해졌듯이 平等이란 概念에도 이와 같은 積極的인 側面이 附加하게 된다. 그런데 社會的貢獻은 個人的인 活動을 통해서만 이룩되는 것이 아니고 더 複合的인 「社會시스템」에 있어서의 사브·시스템(Sub system)의 「分擔이란 새로운 型의 協력이 重要하게 된다. 그것은 情報社會가 複合的인 社會「시스템」으로서 形成되게끔 되어 있는 까닭이다. 다시 말하면 國民이 서로가 共通의 보다 高次의 目標을 세우고 그 目標에 對해서 各己 自己의 能力에 따라 그의 機能을 分擔한다는 모습으로 바뀌어 간다는 것으로, 이것이 곧 새로운 모습의 協同社會인 것이다. 이 境遇의 協同社會는 어디까지나 實力主義에 따르는 機能的社會이다. 그래서 能力이 있는 사람 또 努力하는 사람은 그에 알맞는 보다 高次의 새로운 機能을 分擔할 機會가 주어진다. 이와 같이 하여 未來의 情報社會에서는 資本의 所有關係든가 身分에 따르는 階級的인 差別이란 것은 完全히 없어지고 가장 重要視되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知的能力이며 높은 倫理觀인 것이다. 教育의 機會는 모름지기 均等하고 平等하며 能力이 있고 또 努力하는 사람은 社會活動에 있어서 보다 높은 機能을 分擔하는 機會가 주어지므로 이것은 어떤 意味에서는 「메리트크라시」(實力主義)의 社會라고도 말할 수 있다. 이것이 情報社會의 本然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形態로서 各各의 人間이 能力에 따라 積極的으로 情報社會의 維持, 發展에 必要한 機能을 分擔하여 보다 高次의 社會를 實現하기 爲하여 協力하여 나가는 것이 機能民主主義의 基本的인 性格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이 考察하여 보면 情報社會가 指向하는 未來社會는 最適社會라고 할 수 있다. 이 最適社會에서는 個人的인 狹少한 享樂的이고 頹廢的인 生活을 指向하는 것이 아니고 더욱 더 發展的인 삶의 보람찬 生活을 保障함과 同時에

한편에서는 自然環境의 破壞가 아니고 自然과의 共存을 指向하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巨大한 自然이란 存在를 謙虛하게 認識하여 自然의 「시스템」속에서 人間社會를 어떻게 「다이나미持」하게 成長시켜가느냐를 생각하는 것으로 이것은 自然과의 共存의 精神인 것일 뿐이다.

이와 같은 最適社會를 指向하는 境遇에는 모든 市民은 最適社會의 「디자인」에 參加하고 徹底히 討論하여 그 가운데 國民的合意에 到達한다는 것이 必要하게 되며 그와 같은 合意에 立脚하여 지금까지 말하여 온 機能的民主主義에 따라서 各々が 그의 能力에 따라 各己의 部畧을 分擔하고 새로운 未來社會의 建設에 參加한다는 것이 이제부터의 새로운 未來社會에 있어서의 民主主義的인 思考方式의 基本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情報社會에 있어서는 그 前의 工業社會에 있어서의 自由民主主義에 代置할 機能民主主義는 새로운 「패턴」(Pattern)이 形成된다고 생각하는 바이다.